

## 아파트 공간의 선호 성향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ference for Interior Spaces in Apartment Houses

류 호 창(Lyu, Ho-chang)

건국대학교 디자인조형대학 실내디자인학과

이 호 중(Lee, Ho-joung)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실내건축설계학과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 방법

## 2. 선호 경향 분석

- 2.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 2.2 주거 규모에 관한 선호 경향
- 2.3 아파트 선택 요인별 선호도 및 만족도
- 2.4 실내환경에 관한 관심도 및 만족도

## 3. 공간별 분석

- 3.1 거실
- 3.2 식당 및 주방
- 3.3 다용도실 및 서비스 공간
- 3.4 욕실

## 4. 결론

## 참고 문헌

## (要約)

과반수 이상의 국민이 살게 된 아파트 환경은 거주자의 요구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서 물량공급적 측면만이 강조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조만간 주택 보급률이 10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전반적인 생활 수준의 향상과 함께 수요자의 다양한 거주 환경에 대한 욕구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거주자의 욕구 특성을 파악하고 현 거주 환경에 대한 만족도 및 선호경향의 변화를 분석해 보는 것은 거주자의 주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바람직한 주거환경 창조를 위한 필수 선행과제이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아파트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아파트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및 선호도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거주자 요구충족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공간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apartment residents' satisfaction and preferences and their environments on purpose to provide useful data for developing new apartment environment based on resident's needs and wants. this research was execut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method.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 (1) Preference of large space of apartment dwelling is still prevailing. The older people have the tendency to prefer orientation to vista.
- (2) Among environmental factors of livingroom, size is mostly ranked higher than vista and orientation. Result of higher ranking of vista than orientation can be explained with the change of life cycle and patterns based on social environmental change and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control systems.
- (3) The highest concern about interior design is targeted to livingroom, and quality of finish materials is preferred at the highest.

## (Key words)

preference, satisfaction, environmental factors, wants, needs.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의 주거는 근래 30년간 획기적인 변화를 거쳐오면서 아파트라는 환경에서 전 국민의 반수 이상이 살게 되었고, 국토연구원의 조사결과 자가주택 유형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도 1999년 기준 4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sup>1)</sup>

이렇게 우리 나라의 주된 주거환경이 된 아파트는 70년대 이래로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에 의해 물량 위주의 대량 건설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한국주택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99년 주택보급률이 전국 93.4%, 수도권 83.3%, 서울 70.7%에 이르고, 2002년경에는 전국적인 주택보급률이 100%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렇듯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가 상당히 완화된 만큼 이제는 주택정책의 목표를 주택공급 확대에서 주거수준 향상으로 전환해야 할 때가 되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아파트 환경이 거주자의 생활 양식이나 세대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였고, 거주자의 요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획일화된 공간구성으로 질적 수준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점은 주거에 대한 애착심과 공동체 의식의 결여 등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정주성을 약화시키는 등 주거환경의 부정적 평가를 초래했다. 그런 문제점은 곧 거주자의 개별적 요구와 사용상의 편의, 차별화 경향, 질적 수준 향상 추세, 주거이미지 등에 따라 많은 부분이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개조, 변경되는 사례를 낳았다. 이런 변화추이와 함께 1995년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자 위주의 시장에서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짐으로써<sup>2)</sup> 질적 향상을 통한 차별화 경향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거주자들의 요구 특성과 그 선호 경향의 변화추이를 조사한다는 것은 아파트의 질적 수준 향상과 차별화 전략 수립을 위한 필수적 선행 과제라 할 수 있다.

주거계획은 사용자의 가치와 요구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이런 사용자의 가치와 요구는 만족도 또는 선호도로써 측정 가능하다.<sup>3)</sup>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아파트 거주자를 중심으로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 선호도 및 만족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함으로써 현재의 아파트 환경의 문제점과 향후 지향해야 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같은 맥락의 유관 연구가 선행된 사례를 볼 수 있으나 만족도 및 선호도 특성은 시기에 따른 변화 속성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조사 분석의 당위성이 있으며, 선행 연구가 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본 연구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환경과 새로 이주계획을 가지고 있는 환경을 비교하려는 사람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아파트 거주자의 선호 특성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아파트 공간계획의 기초로 삼으려는 연구중의 일부이다. 이런

1) 중앙일보, (2000/01/24)  
 2) 오혜경, 신지원, 아파트 실내공간의 차별화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 실내디자인학회지, 15호(1998년 6월), p. 31.  
 3) 조성희, 박수빈, 주택규모에 따른 아파트 평면계획의 다양화를 위한 거주자 주요구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권 11호(1998. 11), p.154.

취지 아래 아파트 환경에 대한 만족도 및 선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은 크게 두 그룹으로 선정되어 표집되었다. 첫째 아파트환경에 대해 상대적으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건설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새로운 아파트 환경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생각되어 아파트 모델하우스(수도권 소재)를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선정 모델하우스는 가능한 한 객관적 자료를 얻기 위해 다양한 평형대의 아파트 모델이 제시된 곳으로 선정되었으며, 조사시기는 2000년 2월 - 4월 사이에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구체적으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희망 주거규모, 아파트 선택 요인, 환경요소별 만족도, 공간별 선호도 및 만족도 등이다. 단 주거공간을 크게 가족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과 개인적인 공간으로 구분하였을 때 본 연구의 공간별 선호도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주거공간 내의 공동 사용공간만을 본 연구의 범위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주된 개인적 사용공간인 침실은 이차적인 연구과제로 계획되어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으며, 공동 사용공간은 거실, 식당 및 주방, 욕실, 다용도실 및 서비스 공간으로 분류 조사되었다. 여기서 '개인적 사용공간'의 의미는 프라이버시를 기준으로 한 공간 분류와는 차이가 있음을 밝혀둔다.

본 설문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전체 설문지의 양이 다소 부담스러운 점이 있어 일반사항(성별, 연령, 현 주거규모, 희망 주거규모, 가족구성원 수)은 공통으로 포함되었으나 몇 개의 세트로 분리하여 작성되었다. 즉 선호도/만족도에 관한 설문 세트, 거실에 관한 설문 세트, 욕실에 관한 설문 세트, 다용도실 및 서비스공간에 관한 설문 세트, 다용도실 및 서비스공간에 관한 설문 세트로 구분되어 작성되었으며, 이상의 설문 전체를 모두 포함한 종합 설문 세트도 작성되었다.

설문지는 총 496부가 회수되었으나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유효한 응답을 보인 47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최종분석에 사용된 설문지 세트는 선호도/만족도에 관한 설문지 38부, 다목적 공용공간에 관한 설문지 78부, 거실에 관한 설문지 83부, 다용도실 및 서비스공간에 관한 설문지 83부, 욕실에 관한 설문지 87부와 함께 종합 설문지 112부가 분석되었다. 따라서 분석을 위한 각 세트의 최종 부수는 <표 1>과 같다. 단 다목적 공용공간에 관한 설문 결과의 일부는 주거규모에 관한 선호도 분석 목적에 사용되었으나 구체적인 다목적 공용공간의 분석내용은 논문의 양적인 문제로 인해 별도의 연구발표로 계획되었다.

<표 1>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 부수(N=478)

| 세트별 설문지 부수           | 종합 설문지 부수 | 분석에 사용된 세트별 총 부수 |
|----------------------|-----------|------------------|
| 선호도/만족도에 관한 설문지      | 38        | 150              |
| 다목적 공용공간에 관한 설문지     | 78        | 190              |
| 거실에 관한 설문지           | 82        | 194              |
| 다용도실 및 서비스공간에 관한 설문지 | 81        | 193              |
| 욕실에 관한 설문지           | 87        | 199              |

회수된 설문지는 SPSS 도구를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값을 조사하였으며, t-test,  $\chi^2$ -검증을 통해 성별, 연령, 가족수 등에 따른 선호 차이를 분석하여 유의적 차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논의하였다.

## 2. 연구결과 및 분석

### 2.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자가 전체적으로 46%, 여자가 54%였으며, 연령분포는 30대가 46.2%를 차지하고 있다. 가족구성원수를 기준으로 보면 3명이 23.2%, 4명이 48.1%를 차지하여 전체 응답자의 71.3%를 차지하고 있다. 주택규모도 대상자의 70.5%가 20평형대와 30평형대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평형별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가구당 산술적 평균 주거면적은 30.1평). 1999년 국토연구원 조사결과인 가구당 자가의 평균 주거면적 23.1평, 1인당 주거면적 6.2평)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주로 수도권외의 거주자로 새로운 아파트 구입희망자인 점을 감안할 때 전국 평균치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배경이 될 것이다.

<표 2> 설문 응답자 분석(N=478)

| 변인     | 범위       | f   | %    |
|--------|----------|-----|------|
| 성별     | 남        | 220 | 46.0 |
|        | 여        | 258 | 54.0 |
| 연령분포   | 30세 이하   | 72  | 15.1 |
|        | 30~35세   | 102 | 21.3 |
|        | 36~40세   | 119 | 24.9 |
|        | 41~45세   | 101 | 21.1 |
|        | 46~50세   | 39  | 8.2  |
|        | 50세 이상   | 45  | 9.4  |
| 가족구성원수 | 2명 이하    | 54  | 11.3 |
|        | 3명       | 111 | 23.2 |
|        | 4명       | 230 | 48.1 |
|        | 5명       | 73  | 15.3 |
|        | 6명 이상    | 10  | 2.1  |
| 주거 규모  | 10평형대    | 66  | 13.8 |
|        | 20평형대    | 182 | 38.1 |
|        | 30평형대    | 155 | 32.4 |
|        | 40평형대    | 70  | 14.6 |
|        | 50평형대 이상 | 5   | 1.0  |

### 2.2 주거 규모에 관한 선호 경향

현재 주거 규모와 희망 주거 규모를 조사한 결과, 현재 주거 규모의 산술적 평균치(30.1평)에 비해 희망 주거 규모는 7.4평이 늘어난 37.5평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현재의 주거면적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응답자의 수가 적어 통계적 의미는 약하지만 50평형 이상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는 희망 주거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여 추후 연구과제로 생각된다.

가족 구성원수와 희망 주거규모를 분석해 보면 가족 구성원수에 관계없이 가장 선호되는 규모는 30평형대로 나타났으며, 가족구성원수가 2~3명인 경우 60%이상의 선호도를 나타낸다. 희망 주거규모의 설문결과를 가족구성원수에 따른 단순 산술적 평균치로 계산해보면 가족이 2명인 경우 34.1평, 3명인 경우 34.2평, 4명인 경우 38.9평, 5명인 경우 39.7평, 6명인 경우 40.1평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의 통계결과(1999)를 보면 95년 1인당 주거면적이 5.9평에서 99년 6.2평으로 늘어났고, 자가의 평균주거면적도 5년 사이에 1.9평이 늘어나면서 확인된 대형주택 선호경향은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3> 현재 주거 규모와 희망 주거 규모(N=478)

| 희망주거규모 \ 현재주거규모 | 10~19평 | 20~29평 | 30~39평 | 40~49평 | 50평 이상 | 계   |
|-----------------|--------|--------|--------|--------|--------|-----|
| 10~19평          | 1      | 20     | 40     | 5      |        | 66  |
| 20~29평          | 4      | 15     | 142    | 21     |        | 182 |
| 30~39평          | 1      | 16     | 69     | 57     | 12     | 155 |
| 40~49평          |        | 1      | 18     | 29     | 22     | 70  |
| 50평 이상          |        |        | 2      | 2      | 1      | 5   |
| 계               | 6      | 53     | 271    | 113    | 35     | 478 |

가족구성원 수가 희망주거면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구성원별 조건확률을 구하면 <표 5>와 같다. 표에 의하면 가족구성원이 2명인 경우 66%가 30평형대 아파트를, 가족구성원이 3명인 경우 60%가 30평형대 아파트를, 4명인 경우 55%, 5명인 경우 53%가 각각 30평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30평형대의 아파트가 가장 선호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희망주거면적에 대한 가족구성원수별 조건확률

|       | 10평형대  | 20평형대  | 30평형대  | 40평형대  | 50평형대  |
|-------|--------|--------|--------|--------|--------|
| 2명 이하 | 0.0377 | 0.1887 | 0.6604 | 0.0377 | 0.0755 |
| 3명    | 0.0180 | 0.2162 | 0.6036 | 0.1532 | 0.0090 |
| 4명    | 0.0131 | 0.0524 | 0.5502 | 0.2969 | 0.0873 |
| 5명    | 0.0000 | 0.0548 | 0.5342 | 0.3014 | 0.1096 |
| 6명 이상 | 0.0000 | 0.2000 | 0.2000 | 0.4000 | 0.2000 |

'가족구성원의 수가 동일한 경우 응답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희망 주거면적이 더 넓어지는가'를 분석해본 결과 가족구성원이 2인인 경우는 유의수준(0.05)에 비해 계산된 p-값(0.3274)이 커서 연령과 희망주거면적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구성원이 3명인 경우 p-값(0.00179), 4명인 경우 p-값(0.00003), 5명인 경우 p-값(0.00121)이 유의수준에 비해 작아 연령이 높을수록 희망주거면적이 더 넓어진다고 할 수 있다. 즉 가족구성원이 2명 이하인 경우(예로 독신자, 신혼, 노부부 등)연령에 따라 희망주거면적에 차이가 없으나 가족구성원이 증가하면서 연령에 따라 희망주거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이 결과는 타 연구결과(조선희,박수빈, 1998)와도 일치한다.

### 2.3 아파트 선택 요인별 선호도 및 만족도

1) 아파트 선택에 있어서의 요소별 중요도

아파트 선택의 주된 기준요소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위치, 가격, 자녀교육, 향, 주변환경, 실내디자인, 건설회사 지명도, 단지 내부 환경디자인, 부대시설 순으로 아파트 선택의 주요 기준요소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아파트 선택 요소별 중요도 분석(N=150)

| 선택요소 \ 중요도             |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 | 조금 중요하다 (2점) | 중요하다 (3점) | 매우 중요하다 (4점) | 평균   | 순위 |
|------------------------|-----------------|--------------|-----------|--------------|------|----|
| 가격                     |                 | 8            | 61        | 81           | 3.49 | 2  |
| 위치(교통)                 |                 | 3            | 39        | 108          | 3.70 | 1  |
| 실내 디자인                 | 2               | 21           | 73        | 54           | 3.19 | 6  |
| 건설회사 지명도               | 3               | 28           | 69        | 50           | 3.11 | 7  |
| 향                      | 2               | 17           | 68        | 63           | 3.28 | 3  |
| 자녀 교육                  | 5               | 18           | 59        | 68           | 3.27 | 5  |
| 부대시설 (상가, 체육시설 등)      | 13              | 47           | 60        | 30           | 2.71 | 9  |
| 주변환경 (공원, 문화시설 등)      | 2               | 18           | 66        | 64           | 3.27 | 4  |
| 단지내부 환경디자인 (조경, 조형물 등) | 4               | 29           | 68        | 49           | 3.08 | 8  |

이 결과는 통계청에서 1997년 조사한 '현 거주지 선택이유' 결과(표 5)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서 '직장/사업' 항목과 '교통/인근시설' 항목이 본 조사에서의 '아파트의 위치'에 대응된다고 하면 역시 위치, 가격이 가장 우선하고, 자녀 교육과 환경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통계청 조사(1997) '현 거주지 선택 이유'

|    | 경제적 사정 | 직장/사업 | 교통/인근 시설 | 자녀교육 | 자연환경 | 기타   |
|----|--------|-------|----------|------|------|------|
| 전국 | 30.4   | 22.6  | 12.1     | 6.7  | 4.6  | 23.6 |
| 시부 | 33.7   | 23.1  | 14.5     | 8.1  | 4.4  | 16.2 |

전통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집을 선택할 때 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었다. 본 조사에서도 '향'에 대한 관심을 측정하기 위해 별도의 항목으로 향을 조사한 결과 여전히 높은 선호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의 경우 전망이 향에 우선하는 경향인데 이는 지역적 특성과 함께 냉난방설비의 완비를 통해 실내환경의 통제가 용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아파트도 환경통제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향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는 인식아래 향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해보았다. 즉 '향에 대한 관심은 연령이 높을수록 커지는'를 분석한 결과 p-값(0.04688)이 유의수준(0.05)에 비해 작게 나타났다. 즉 아파트의 향에 대한 중요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조건부 확률을 계산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전통적

인 관습에 따라 향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연령에 따른 향에 대한 관심도

|        | 중요하지 않다 | 중요하다   | 매우 중요하다 |
|--------|---------|--------|---------|
| 30세 이하 | 0.1250  | 0.6250 | 0.2500  |
| 30~35세 | 0.1818  | 0.4091 | 0.4090  |
| 36~40세 | 0.0732  | 0.5854 | 0.3415  |
| 41~45세 | 0.1724  | 0.2414 | 0.5862  |
| 46~50세 | 0.0000  | 0.2222 | 0.7778  |
| 50세 이상 | 0.0000  | 0.6667 | 0.3333  |

## 2.4 실내환경에 관한 관심도 및 만족도

### 1) 공간별/요소별 실내디자인에 대한 관심도

전체 응답자(N=150)의 84.7%가 실내디자인이 아파트환경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연령층이 가장 실내디자인에 대한 비중을 크게 생각하고 있으며, 20대와 30대 응답자의 반응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가장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에서 실내디자인이 가장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은 거실(62.7%), 주방(30%), 화장실(4.0%), 침실(2.7%) 순으로 나타났다. 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은 역시 거실(81%)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 침실, 주방 순으로 나타났다.

실내디자인 요소 중에서는 마감재료(48.7%), 주방 가구 및 설비(32.7%), 거실 가구(8%), 조명(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면적의 증가를 가장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40.7%), 실내디자인의 고급화(34.7%), 첨단 편의시설(12.7%),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10%)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원하는 경우, 그 이유로는 교통 문제가 가장 큰 이유였으며, 그 다음이 주거환경을 꼽고 있다. 이 결과는 앞에서의 아파트 선택의 중요도 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조사 결과 여전히 실내디자인에 대한 관심은 거실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마감재료의 고급화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 2) 실내환경에 대한 만족도

현재 아파트 환경 요소 - 실내 환기, 소음, 채광, 창 의 프라이버시, 보안/경비, 마감 재료, 욕실설비, 가구, 주방설비 - 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채광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광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대부분의 아파트가 다른 어떤 환경요소보다도 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되어 왔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채광을 제외하고는 실내환기, 창 의 프라이버시, 소음, 보안/경비, 가구, 욕실설비, 마감재료, 주방설비 순으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응답자 수에 비해 척도의 세분화로 인한 분석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전혀 중요하지 않다'와 '조금 중요하다'는 '중요하지 않다'로 통합하여 분석하였음.

특히 소음에 대한 불만족은 응답자의 38.1%가 도로의 차량소음을, 33.3%가 이웃으로부터의 소음을, 20.6%가 이웃 세대 화장실의 급배수 소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창 의 기밀성, 이웃세대와의 차음성능 개선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불만족도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창을 통한 앞 동과의 시각적 프라이버시 문제(54.5%)가 가장 크게 지적되고 있으며, 다음이 이웃 세대와의 청각적 프라이버시(33.3%)를 지적하고 있어 아파트단지의 배치계획과 아파트 세대간의 구조적 차음성능 개선이 크게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실내환경 요소별 만족도(N=150)

|          | 매우 불만족 (1점) | 조금 불만족 (2점) | 그저 그렇다 (3점) | 조금 만족 (4점) | 매우 만족 (5점) | 평균   |
|----------|-------------|-------------|-------------|------------|------------|------|
| 실내환기     | 11          | 30          | 76          | 33         |            | 2.87 |
| 소음       | 21          | 39          | 50          | 40         |            | 2.73 |
| 채광       | 7           | 18          | 45          | 80         |            | 3.32 |
| 창의 프라이버시 | 11          | 33          | 62          | 44         |            | 2.93 |
| 보안/경비    | 10          | 37          | 84          | 19         |            | 2.75 |
| 마감재료     | 18          | 40          | 75          | 17         |            | 2.60 |
| 욕실설비     | 24          | 33          | 72          | 21         |            | 2.60 |
| 가구       | 12          | 37          | 82          | 19         |            | 2.72 |
| 주방설비     | 19          | 43          | 73          | 15         |            | 2.56 |

### 3. 공간별 분석

#### 3.1 거실

거실의 기능과 요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기초 조사에서 가족이 주로 모이는 시간은 저녁과 밤 시간이 전체의 9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TV시청(66%)과 대화(28%)가 주된 활동으로 나타났으며, 그 시간은 2시간이내(81%)가 대부분이다.

가족이 모이는 장소로는 거실(84%), 안방(13%), 식당(2%)의 순이며, 가족의 한 사람과 개인적인 대화를 할 때는 거실(43%), 안방(27%), 개인 침실(24%), 식당(4%), 부엌(3%)이 선호되었다. 개인적으로 편히 쉬고자 할 때는 개인 침실(85%)과 거실(15%)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접객 장소에 대한 설문에서는 손님 구분은 관계없이 전체적으로는 거실(81%), 개인침실(8%), 안방(7%), 식당 및 부엌(3%) 순으로 손님접대의 선호 장소로 응답했다. 이렇듯 거실이 가정내 중심공간이 되고 있음은 타 연구(김수진, 이영수, 1998) 결과와 동일하게 재확인된다. 특이한 점은 자녀의 손님인 경우는 개인 침실에서 접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과 노부모의 손님, 그리고 친척인 경우 여전히 안방에서 접객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여전히 주침실 즉 안방에서 접객을 하는 것이 손님을 예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전통적인 관습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9> 손님의 구분에 따른 접객 장소(N=194)

| 구분 \ 장소 | 안방 | 개인 침실 | 거실  | 식당 | 부엌 | 해당 없음 |
|---------|----|-------|-----|----|----|-------|
| 친척/이웃   | 11 | 1     | 157 | 3  | 1  | 21    |
| 주부의 손님  | 9  |       | 138 | 10 |    | 37    |
| 남편의 손님  | 12 | 3     | 134 | 1  |    | 44    |
| 자녀의 손님  | 7  | 48    | 70  |    | 5  | 64    |
| 노부모의 손님 | 12 | 5     | 61  |    | 3  | 113   |
| 계       | 51 | 57    | 611 | 14 | 9  | 279   |

거실의 환경적 요소의 비중을 다루는 질문에는 거실의 크기, 전망, 향, 창의 크기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8 참조) 창의 크기에 대한 비중이 적은 것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거실의 창이 거의 동일하게 전창형으로 계획되고 있음에 따라 평상시 창의 크기에 대한 불만이 적어 상대적으로 무관심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만일 창의 크기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었을 경우에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에 대한 비중이 20% 정도인 점도 대부분의 아파트 계획시 남향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 의식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이유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 분석결과 거실의 크기와 전망에 대한 비중이 높다는 것은 곧 이 요소에 대한 불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표 10> 거실의 환경적 요소의 선호도(N=192)

| 빈도 | 향    | 전망   | 거실의 크기 | 창의 크기 |
|----|------|------|--------|-------|
| f  | 38   | 71   | 81     | 2     |
| %  | 19.8 | 40.0 | 42.2   | 1.0   |

거실의 형태에 관한 질문에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에서와 같이 개방된 공간형태의 거실에 대한 선호도는 69.4%, 독립된 방의 형태로서의 거실에 대한 선호도는 30.6%로 나타나 여전히 현재 일반적인 거실의 형태가 선호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독립된 공간을 선호하는 응답 비중도 30%를 넘는 것으로 보아 가족간의 프라이버시나 손님접대시의 프라이버시를 위한 공간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3.2 식당 및 주방

식당 및 주방은 전통주거에서 안방의 가족식사, 손님접대 기능이 식침분리로 인한 공간 분화현상으로 발생되어 점차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거실에서 식당의 식사행위가 보이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보이지 않기를 원한다는 응답이 54%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는 손님이 방문했을 때 불편하다는 의견과, 식사할 때 타인의 시선이 부담스럽다는 점을 주로 꼽고 있다. 또한 주방의 식사준비 및 뒷처리의 모습이 식당이나 거실에서 보이

6) 김수진, 이영수, 아파트 거주자의 주생활 양식에 따른 단위평면 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2호(2000.3), p.105.

는 것에 대해 보이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보이기를 원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76%에 이르고 있다. 이런 환경은 현재 대부분의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 개방형 또는 부분 개방형인 점에 비추어보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의 하나로 주방에서의 작업시 현재 대부분의 경우 벽면을 향하고 있는 것을 식당이나 거실을 향한 개방적 주방 평면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그런 계획을 위한 기초조사 결과, '부엌에서의 식사 준비 및 뒷정리를 할 때 가족과 마주보기를 원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41%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충된 결과에 따라 - 비록 주방에서의 작업행위시 다른 가족구성원과의 대화 및 시선의 마주침이 가능한 배치가 바람직하다는 다른 선행연구 발표가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내면형 주방 계획은 세심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외에 부엌에서 식사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전화통화를 원한다는 의견이 85%, TV시청을 원한다는 의견이 55%임을 고려해 실내계획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파트의 built-in 가전제품으로 설치해줄기를 바라는 선호 품목에 대한 조사에서는 식기세척기, 가스오븐 레인지, 중앙집중식 청소기, 김치냉장고, 세탁건조기,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의 순으로 설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중앙집중식 청소기에 대한 선호도가 최근 크게 높아지고 있는데 다른 품목과는 달리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건축 설계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 11> 분양시 기본으로 제공되기 원하는 built-in 가전제품 (3개 품목 선택)

| 품목<br>빈도 | 식기   | 가스   | 중앙   | 냉장고 | 김치냉  | 세탁기 | 세탁  | 전자레 |
|----------|------|------|------|-----|------|-----|-----|-----|
|          | 세척기  | 오븐   | 집중식  |     |      |     |     |     |
| f        | 125  | 99   | 86   | 38  | 80   | 28  | 53  | 25  |
| %        | 23.4 | 18.6 | 16.1 | 7.1 | 15.0 | 5.2 | 9.9 | 4.7 |

### 3.3 다용도실 및 서비스 공간

다용도실에서의 불편한 사항은 주로 공간의 협소(48%), 수납 선반의 부족(33%), 채광 부족(12%) 등으로 조사되어, 공간계획 단계에서부터 개선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흔히 발코니 공간을 침실 확장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질문으로, 발코니와 침실 사이의 창을 없애서 침실을 확장하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찬성 43.9%, 반대 56.1%로 나타나 여전히 발코니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세탁기를 사용하고 있는 장소는 다용도실(62%), 발코니(22%), 욕실(14%), 부엌(2%)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거 규모가 커질수록 발코니에 놓는 경우가 적어지고 다용도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결과는 세탁기를 주로(90.9%) 후면베란다에서 사용한다는 타 연구결과(김수양, 1998)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후면 베란다(또는 발코니)와 다용도실의 구별이 명확치 않아 혼용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12> 주거규모에 따른 세탁기 장소(N=195)

| 장소<br>주거규모 | 부엌 | 욕실 | 다용도<br>실 | 발코니 | 기타 | 계   |
|------------|----|----|----------|-----|----|-----|
| 10평형대      | 2  | 6  | 11       | 10  | 2  | 31  |
| 20평형대      | 2  | 12 | 42       | 17  | 2  | 75  |
| 30평형대      |    | 4  | 41       | 11  |    | 56  |
| 40평형대      |    | 3  | 23       | 3   |    | 29  |
| 50평형대      |    | 1  | 1        |     |    | 2   |
| 계          | 4  | 26 | 118      | 41  | 6  | 193 |

세탁기의 위치에 관계없이 손세탁을 하는 장소로는 욕실(63%), 다용도실(29%), 발코니(8%) 순으로 확인됐는데, 작은 규모(29평 미만)의 주거에서는 70~85%가 화장실에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가 커질수록 다용도실의 사용이 증가하여 30~40평형대의 경우 50%내외에 이른다. 하지만 주거규모에 관계없이 손세탁을 하기에 바람직한 장소로는 다용도실(55%), 욕실(31%)을 꼽고 있어, 다용도실의 적정면적이 확보된다면 손세탁은 다용도실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탁물 건조는 주로 발코니(80.2%)와 다용도실(9.3%)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용도실에서 세탁물 건조를 희망하는 의견이 18%로 조사되어 다용도실 계획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13> 손세탁하기를 원하는 장소(N=195)

| 장소<br>주거규모 | 부엌 | 욕실 | 다용도실 | 발코니 | 기타 | 계   |
|------------|----|----|------|-----|----|-----|
| 10평형대      | 1  | 13 | 12   | 5   |    | 31  |
| 20평형대      |    | 26 | 40   | 7   | 2  | 75  |
| 30평형대      | 1  | 9  | 34   | 9   | 3  | 56  |
| 40평형대      |    | 8  | 18   | 3   |    | 29  |
| 50평형대      |    | 2  |      |     |    | 2   |
| 계          | 2  | 58 | 104  | 25  | 6  | 193 |

### 3.4 욕실

욕실 개수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욕실이 현재 1개인 경우 전체적으로 62%가 불만족하고 있는데, 가족구성원이 3명인 경우에는 50%가 불만족한 상태이지만, 가족구성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는 74%가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욕실이 2개인 경우 전체적으로 94%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희망하는 욕실의 개수에 관한 질문에, 가족구성원이 3명인 경우에도 87.5%가 2개의 욕실을 희망하고 있으며, 가족구성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는 96.8%가 2개 이상의 욕실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 주거규모에 크게 관계없이 3인이상의 거주자를 대상으로한 아파트인 경우 이제는 최소한 15개의 화장실(욕조없는 화장실 1개소 포함)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욕실을 하나 더 설치하기 위해 다른 공간이 좁아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다른 공간을 줄이기보다는 현재의 욕실로 만족하겠다'는 의견이

아직도 64.8%에 이르고 있어 중소규모의 아파트인 경우 부득이 다른 공간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며 욕실의 수를 늘리는 것은 적용시기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표 14> 가족구성원 수와 욕실 수에 따른 만족도(N=195)

| 가족구성원 수 | 욕실 수 | 만족도 |     | 계   |
|---------|------|-----|-----|-----|
|         |      | 만족  | 불만족 |     |
| 2인 이하   | 1    | 10  | 8   | 18  |
|         | 2    | 1   |     | 1   |
| 3인      | 1    | 16  | 15  | 31  |
|         | 2    | 15  |     | 15  |
| 4인      | 1    | 13  | 48  | 61  |
|         | 2    | 38  | 3   | 41  |
| 5인      | 1    | 5   | 9   | 14  |
|         | 2    | 13  | 1   | 14  |
|         | 3    |     | 1   | 1   |
| 6인      | 1    | 1   | 1   | 2   |
|         | 2    | 1   |     | 1   |
| 계       |      | 112 | 83  | 199 |

치 2의 욕실의 위치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 주침실에 인접하기를 희망(67.8%)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노인방(9.0%)과 자녀방(6.8%)의 순으로 나타났다.

욕조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는 82% 이상이 여전히 욕조가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으며, 그 사용용도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 욕조는 목욕(36.2%), 샤워행위(35.8%)와 함께 여전히 세탁(12.4%), 물 저장(8.5%), 김장(7.1%) 등의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별도의 샤워실이 욕조와 함께 필요한지에 관한 질문에는 '매우 필요하다'(19%), '가끔 필요하다'(44%), '불필요하다'(37%)로 응답했으며, 발을 씻는 장소에 대한 질문에 '욕실 바닥에서 씻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42.3%에 이르고 있어 여전히 우리의 욕실 사용이 서양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욕실 바닥의 물기로 인한 미끄러움의 위험성에 대한 디자인적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욕실에서의 위험성 요소에 대한 조사의 하나로 욕실에서 다친 경험의 원인에 대한 질문에서도 '욕실 바닥의 미끄러움'이 전체의 7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 '욕조 안의 미끄러움', '날카로운 모서리', '욕조 높이의 불편함', '뜨거운 것에 데임' 등이 원인이었다.

<표 15> 욕실에서의 다친 경험의 원인(N=183)

| 원인 | 욕실 바닥의 미끄러움 | 욕조 안의 미끄러움 | 날카로운 모서리 | 욕조 높이의 불편함 | 뜨거운 것에 데임 |
|----|-------------|------------|----------|------------|-----------|
| f  | 133         | 35         | 5        | 5          | 5         |
| %  | 72.7        | 19.2       | 2.7      | 2.7        | 2.7       |

기타 욕실의 불편함으로 지적된 점은 부적절한 환기시설, 공간의 협소함 등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욕조로부터의 물 튀김, 욕조의 크기, 소음 등도 지적되었다.

#### 4. 결론

주택을 투자수단으로 여기던 경향이 이제는 자신들의 가구특성 및 사회경제적 수준에 맞게 실수요 위주의 다양한 주거를 선택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아파트 환경이 개개인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특성을 하나의 계층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아파트 환경에 대한 거주자의 만족도와 선호 경향을 조사분석하여 아파트 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거주자 선호도 및 만족도에 관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반적인 대형주택 선호경향은 여전히 우세하며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희망주거면적이 넓어지고, 향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진다.
2. 실내디자인에 대한 관심은 거실 공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감재료의 고급화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프라이버시에 관한 불만족은 창을 통한 앞 동과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어 아파트 배치계획에서부터 세심한 고려를 요구한다.
4. 거실에서는 넓이, 전망, 향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전망이 향에 우선하는 경향은 사회적 변화요인에 따른 주생활시간대의 변화, 환경통제시스템의 발달 등이 그 원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5. 4인 가족 기준으로 볼 때 욕실은 2개가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욕실 바닥 및 욕조 바닥의 미끄러움 방지를 위한 고려가 여전히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문헌

1. 김수양, 아파트 후면 베란다의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5호, (1998)
2.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1990, 1995)
3. 윤주현, 주택수요구조의 변화와 주택정책방향, 국토(1999. 5)
4. 오혜경, 신지원, 아파트 실내공간의 차별화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5호(1998)
5. 김수진, 이영수, 아파트 거주자의 주생활양식에 따른 단위평면 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22호, (2000)
6. 유정근, 유길준, 아파트 공간이용의 행태적 특성과 주생활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권, 11호, (1998)
7. 조성화, 박수빈, 주택규모에 따른 아파트 평면계획의 다양화를 위한 거주자 주요구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권, 11호, (1998)
8. 장상욱, 아파트 거주자의 기거양식과 만족도, 한양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